

맛과 영양 한번에, 빌리프인미 '과일죽의 시대'

Aving-2014. 11. 9.

빌리프인미(대표 양성민, www.fruitjook.com)는 오는 27일(목)부터 30일(일)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'MEGA SHOW 2014 시즌2 (이하 메가쇼 시즌2)'에 참가해 국내 최초 과일죽 브랜드인 '과일죽의 시대'를 선보일 예정이다.

'과일죽의 시대'는 100% 국내산 과일과 쌀을 사용하여 과일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은 건강 영양죽으로 한 손에 들어오는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.

현재는 아로니아죽과 토마토죽 두 종류가 출시됐으며 아로니아죽과 토마토죽 모두 '5無원칙(無방부제, 無합성착향료, 無합성착색료, 無콜레스테롤, 無트랜스지방)'으로 만들어 졌다.

이 두 과일죽은 맛은 물론, 아로니아와 대추 방울토마토의 항산화 효과, 항암효과, 성인병 예방 효과도 있어 건강 또한 챙길 수 있다.

'왜 맛있는 것은 항상 건강에 안 좋고, 왜 건강에 좋은 것은 맛이 없을까?'라는 고민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이 제품은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사대용 제품으로, 서구화된 식생활에 부족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.

한 팩에 130g인 과일죽은 바쁜 직장인들이 간단하고 든든하게 아침식사로 먹을 수 있고, 적은 칼로리(아로니아죽 96kcal, 토마토죽 85kcal)로 식이요법이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유용하다.

빌리프인미 양성민 대표는 "신뢰와 진심을 담은 웰빙 식품의 개발을 통해 바른 식습관을 선도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"며 "빠른 시일 내 보다 다양한 과일죽 시리즈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, 한국의 죽 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해외 수출 성사에도 노력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한편, '주부가 꿈꾸는 리빙, 주방, 생활용품의 모든 것'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'메가쇼 시즌2'는 리빙, 키친, 푸드, 뷰티&헬스, 라이프스타일 등 5개 분야의 300개사가 참가해 520여 부스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.

참가기업은 브랜드홍보,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반응 조사, 신규 유통망 확충, 현장매출 증대 등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전시 참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메가쇼 홈페이지(www.megashow.co.kr)를 참조하거나 메가쇼 전시회 사무국 지폐어스(02-6677-3477)로 문의하면 된다.

